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Tel. (206) 546-6746  
Beom Hoe Koo, Publisher  
Suk Bok Lee, Editor  
Printed By Pro-Litho

VOL. 1 NO. 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PRIL - MAY 1974

### 부활절 기념 예배

각 한인교회서 기념행사도 접해. 지난 4월 14일은 부활절(Easter Sunday) 십자가에 못박혀 인류의 죄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날을 맞아 씨애틀 지역의 각 한인교회에서는 기념예배와 각종 행사를 가졌다. 기독교 축제중에서 최고의 축제인 부활주일을 맞아 씨애틀 한인 교회에서는 새벽 6시에 특별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타코마에 내려가서 그곳 한인교회와 최선운동경기를 가졌고, 씨애틀 한인형태 교회에서도 기념예배후 축하파티(Easter dinner) 180여명이 있었으며 씨애틀 한인 연합 복음교회에서는 기념예배후에 워싱턴 호수가로 피크닉 갔었는데 이날은 기우마저 유례없이 침묵하고 따뜻하여 교인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런데 씨애틀-타코마지역에 거주하는 교포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인교회수도 여섯(씨애틀-3, 타코마-2, 뷰리엔-1)이나 되는데 부활주일 만큼은 전 한인 기독교인이 한자리에 모여(서울 남산에서 매년있던 부활절 새벽예배를 보며) 같이 예배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점차 표면화 되어가고 있다.

### 아세아인 문화회관

시에서 20만불 책정.

「씨애틀」시 의회에서는 아세아인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사용하도록 시 예산중에서(연방정부기금) 20만불을 별도 책정하고 아세아 4대국(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커뮤니티 지도자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 보도록 종용하여 왔었는데, 지난 4월 8일에 각 커뮤니티 대표(3명씩)들이 두 번째 모여서 이 20만불을 바탕으로 하여 4~5백만불짜리 Asian Community/Cultural Center를 짓도록 추진 하자는 방향으로 얘기를 교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시에서 책정한 20만불은 꼭 국제 상업구역(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에 건물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쓰여 적야하며, 세계의 커뮤니티 센터를 한 자리에 모으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 한인회관 실치를 위해 노력중인 우리로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매번 회의에 임하고 있다. 현재 한인회 대표로는 구법회, 이현기, 전제상 이상 세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영사관계 수수료 인상.

상항 총영사관에서 한인회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여권을 비롯한 영사관계 각종 수수료가 인상 및 재조정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종전 요금)

- 교포 여권 발급 ————— 12불 (10불)
- 일반 여권 연장 ————— 6불 (5불)
- 학생 여권 연장 ————— 1불 (1불)
- 일시 귀국 및 입국 신고 ——— 5불 (1불)
- 경유지 추가 및 변경 ——— 3불 (2불)
- 목적지 " " ————— 6불 (5불)
- 동반자 " " ————— 4불 (4불)
- 여행 목적 변경 ————— 8불 (5불)
- 일반 여권 재발급 ————— 8불 (5불)
- 입시 여행증 발급 ————— 6불 (10불)
- 여권 유효기간 연장 ——— 6불 (5불)
- 여권에 관련된 제사실확인 — 2불 (1불)

참고로, 상항 총영사관의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미국 시민이 한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사증(비자)은 씨애틀에 있는 명예영사가 직접 발행하고 있다.

- Korean Consulate General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lif. 94118  
Tel: (415) 921-2252
- Mr. Richard G. Matheson  
Honorary Consul, Republic of Korea  
The Bank of California Center #2428  
Seattle, Wash. 98164  
Tel: 622-0135

### 「씨애틀」·「밴쿠버」친선 운동회

6월 30일 「씨애틀」에서

1974년도 씨애틀-밴쿠버 친선 피크닉 겸 운동경기가 씨애틀 한인회 주최로 오는 6월 30일에 씨애틀의 「우들랜드」 공원에서 갖게 되는데 씨애틀의 구법회 한인회장은 밴쿠버 한인회 신임 김흥권 회장과 전화로 연락 초청의 뜻을 전하고 날짜를 확정 시켰다. 운동경기 종목과 순서에 관한것은 예전과 별로 다를것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는 "축구" 부활론(운동화를 신고 할 것을 전제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두 한인회에서 결정할 경기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함병춘 대사

씨애틀 방문 예정

함병춘 주미 한국대사께서 부인을 동반 하고 오는 5월 4일 "스프링" 시에서 열리는 세계백람회 개최식에 참석하고, 그 이튿날 5일(일요일)엔 「씨애틀」에 오셔서 교포들을 만나볼 예정인데 한인회에서는 이날 저녁 씨애틀 지역에 사신 교포들이 대서 환영 만찬회를 가져도록 계획을 세우고 참석하인 분들이 회장이나 연원 몇 이사에게 전화로 확인케 주길 바라고 있다. 저녁 식사후엔 라싱톤 여과 학생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일반교포 및 학생들과 면담한 기회를 가진 예정인데 많은 교포들이 나와 주길 바라고 있다

시간 - 5월 5일 저녁 7:30  
장소 - U.W. HUB 309A호실  
(삼층)

### 아세아인 건강 진료소

와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생들과 아세아계통의 의사들에 의해서 1973년 8월에 구성된 아세아인 건강진료소(Asian Community Health Clinic)는 그동안 소득이 낮은 아세아인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업무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짐에 따라 이 사회의 필요성을 느껴 우리 한인회에도 이사로서 일할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 왔는데 한인회에서는 우선 박한진(Professional), 김실동(Community Service) 두 분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비건 힐에 자리잡고 있는 이 무료진료소는 주소가 2902 Beacon Ave South, Seattle, Wa. 98144 전화는 322-1663이며 가족계획에 관한 상담(매주 화요일 저녁 6:30~9:30)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 이 청행 피아노 독주회

와싱턴 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반에 재학중인 이청행씨가 지난 4월 18일 저녁 음악대학 강당에서 많은 청중이 모인 가운데 졸업연주회를 가졌었다.

# 투고

파리다리와 언지위덕 한민회

요즘 아버지가 느즈막 공부열 내어 학교에 다니라니 매우 바쁜 일과를 지낸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전기계산기 하나를 선사하였더니 여우 열심히 계산기 단추와 반죽을 번갈아 번하는 수자와 이름은 한다. 어머니의 그런 수자시음을 보노라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주던 한 제리사의 이야기로 되새기게 된다.

어떤 큰 회사에서 근무하던 양심적인 한 제리사가 있었는데 한번은 옛날로 만원이 장부서 착오가 생긴것을 발견했다. 착오의 원인을 찾으려고 몇번이고 장부본을 훑어 보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항령형의로 반제일이 제리사는 하는수 없이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항강수이 특신라살하고 말았다. 후일 그 제리사의 제안은 그 장부부 살살이 조사 하는 가운데 「파리다리」가 저러곤 죄과를 반전했다. 파리 다리 하나가 "0" 자여 붙어 "9"자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중학시절, 국어시간에 어떤 학생이 선성난게 "인지위덕은 무슨 뜻인가?" 하고 질문했다. 지은은 고인이 된 유창돈선생님이 빈곳이 웃으며 그유모아 섰인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옛날 어떤 시골에 착한 농부가 살았는데 며칠간 먼 고장에 놀일 보러 여행했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 왔다. 어둠컴컴한 안방에 들어가 아내를 찾았으나 아내는 잠이 잠들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와 나란히 한 이불을 덮고 자는 한 머리 짧은 사람이 있지 않나, 순간적으로 화가 벌려난 농부는 밖에서 나가 도끼를 갖고 와서 아내의 머리통을 탐 내버렸다. 로란한 소리라 함께 머리 짧은 사람은 벌떡 일어났다. 농부가 그사람을 가만히 보니 그는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친구인 벼기니었다는것. 유창돈선생님은 말을 마치며 "忍文爲德은 참는것이. 덕이되다는 뜻이니라" 하니 설명을 마쳤다. 인지위덕을 물었던 것으로 부터 제리사는 억울하게 자기의 목숨을 잃었고, 농부는 아내를 잃었다.

뒤에 두가지 일화는 나의 인생행로에 많은 영감을 베풀었다. 또 한해도 미치고 있다. 나의 어머니가 빌어 주신 일화는 수많은 시회잡지를 통과하는데 큰 무기가 되어왔고 오늘날 내가 수자본 매안 다룬 직업인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었는데. 아홉 구라난 북여마미 귀족은 고인이 된 어머니 얼굴을 상기한다. 또 농부의 일화는 나의 사회생활 특히 매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전 한민회보에 두고침탁을 받고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보냈다. 며칠후 예쁘게 인쇄된 회보가 왔다. 제목은 "무엇을 할것인가"로 박혀졌다. 야차! 이걸 어떻게 하나 중학시절 그렇게도 천리히 맞춘법을 가르쳐 주시면 유창돈선생님이 이글을 보시면 "부담에서 번덕 일어나시며 "한글자" 자는 아직도 험라를 바로 못쓰는가? 옛날 A를 주었던 국어선생은 물수해 가겠네" 하시며 호통함이 들라였다. 그때가 변명화행선생님! 인지는 위덕입니다. 그 상사못한채 본 지의 본외가 아니라 저를 망사시키려는 파리다리의 장난입니다."

한민회보 최초로 회비납부의 힘덕이 있었다. 한민회 재부와 회장직은 알아본바도 있거늘 회비를 번리 내 주신것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기에 회보받은 즉시로 회비를 보냈다. 다음회보에 회비납부자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렇게도 번리 없으니 첫줄몇몇은 번리 없게리하고 내이름은 활아 내려갔다. 끝까지 흠이 빠르 내이름이 없었나. 아! "뒤는농위에 나는농이 있구나" 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아! 이것도 파리다리의 번이거다. ZIP CODE의 첫 9자서 파리다리 하나가 떨어져 편지가 Boston에

갔는가보다. 인지위덕을 외우며 또 강은 넘기다. 세번째 한민회보의 Volume No.는 바른 방향으로 나간 것 같아 기뻐했다. 그것은 Vol. 3로 박혀 왔었기 때문이다. 한민회가 박죽한 이래 커마사 몇번은 회보본 발행했다. 주일 Seattle 한민사회사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에게는 아들 회보본 좋은 자료가 되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학생의 초록을 던지 위해서는 한민회보 Vol. No. 5로 손생각해 본 편지가 있다. 73년에 발행된 회보는 Vol. 0으로 걸리 되겠지 저 어창회선생님께서 "우라는 누구인가"란 제목으로 쓰신 회보, 그리고 김덕환선생님께서 "표리중서들 살았 한가니에 나천원원" 하고 예쁘게 단강한 회보는 Vol. -5로, 유레없는 Minus Vol. No.로 걸리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라리 독일 대학생들의 고초를 생각하여 74년도 회보는 Vol. 0으로 하나씩이 이대경가? 여기에는 파리다리의 모가 꼭 필요는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 3년간 한민회보 일원직을 맡고 있는 본의 아니게 파리다리의 화로 많이 겪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인지위덕은 지어주신 여러 선배님들 회보본이 미덕을 생각하면 라면히 마수이 부겨되린다. 제리사와 농부의 일화는 머리수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 광고 모집

Yes, I want to advertise my bussiness

Wash. Korean News     Directory  
 Payment enclosed     Bill me  
 \$75.00 Prime page  
 \$50.00 Full page  
 \$40.00 3/4 page  
 \$30.00 1/2 page  
 \$25.00 1/4 page  
 Design supplied     Design wanted

Contact Pro-Litho if special design need  
 119 Yale ave. N. Seattle 622-7371  
 Gil R. Kim

Bus. \_\_\_\_\_  
 Name \_\_\_\_\_  
 Address \_\_\_\_\_  
 Tel. \_\_\_\_\_ Date \_\_\_\_\_  
 Signature \_\_\_\_\_

### 회비납부요망

한민회 재무 집행진 커하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9830 44th Ave S.W. Seattle Wa. 98136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과 한민회 운영을 위한 참조금 # \_\_\_\_\_, 도합 \$ \_\_\_\_\_ 을 동봉하였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투고

## 세계는 하나이다 민족도 하나이다

국적과 혈통과 언어와 습관을 달리해도 갖난 아기를 낳고 아니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사람이 죽어서 아니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 세계는 인간으로 하나이다. 세계는 인정으로 하나이다. 한 나라를 같이하고 피를 같이하고 말을 같이하고 습관을 같이하는 동포들끼리야 하되 더 말해서 될할까. 미국에서 세계로 식량이 수출되지 않으면 세계는 배가 고플아야 한다. 미국에서 물자가 와가지 않으면 세계의 공업은 중단되고야 만다. 미국에서 세계로 돈이 나가지 않으면 세계의 무역은 어려워진다. 식유생산국에서 식유를 세계에 배급해주지 않으면 세계의 생산과 교역은 난관에 부딪치고만다. 세계는 물결로 하나이다. 세계는 유무상통(무역)으로 하나이다. 한 나라를 같이하고 습관을 같이하는 동포들끼리야 다시 더 말해 할말까. 세계는 전쟁으로 하나이다.

## 시애틀 動靜

- \* 안 병영씨(시애틀 골프클럽 회장) - 부인과 함께 한국에 다니러 4월 13일에 떠났는데 25년만에 처음가보는 일이라 5주동안 고국을 잘 둘러볼 예정이라고.
- \* 김 경진씨(한민회 재무) - 지난 4월 16일에 다녀왔다. 이로서 Mr. James Kim은 1남 2녀의 아버지가 되었음.
- \* 박 암씨(배달원회 대표) - 약 두달 예정으로 고국에 다니러 4월 20일 서울로 향함.
- \* 김 난희씨(라코마 부인회 회장) - 4월 19일에 회장 Mrs. Knowles 및 부인회 일원들이 한민회를 예방.
- \* 허 평화씨(Wash. State Asian American Advisory Board) - 회장인 Mrs. Plecke가 4월 8일 본 한민회를 방문.
- \* 최 용건 목사(시애틀 한인 형제 교회) -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인 장로교 목사대회에 참석차 4월 25일 향함.
- \* 김정일씨 - 4월 20일에 박경락씨와 결혼.
- \* 임철순씨(한국일보 시애틀 지국장) - 동서관광의 한 취인으로서 시애틀에 영업을 개설했는데 주소는 1370 Stewart Street, Seattle. 전화 682-0603.

세계전쟁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어느 일부분의 국지전쟁도 세계전쟁화할 우려는 충분히 있을뿐 아니라 비록 국내 전쟁이라고 해도 세계안에 전쟁이 있는 한 세계는 십적 몰락으로 그 거대한 소모에 불안을 아니 느낄수 없다. 세계는 전쟁으로 하나이다. 세계는 평화에도 하나이다. 세계에는 국가와 국가간에 말썽도 없고 민족대 민족의 분쟁도 없다. 강약은 서로 돕고 유무는 서로 상통해서 천하에는 차별도 구속도 없는 자유와 평등으로 서로의지고 하자. 산사태가 나서 마을을 덮어 버렸다고 하자, 한 도(道)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자, 이와 반대로 낙동강 연안에 비가 알맞게와 곡식도 잘되고 고기도 많이 잡혔다고 하자 마을에도 도어 유수풍조 해서 풍년이 들었다고 하자. 이런 천사건은 결코 빈부과 잘된 사람 못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보편 일출되므로기때문에 그 권내에 사는 사람은 그 누를 물론하고 그 행복의 범위밖에 실수는 없다. 보다 더 큰 실례로서는 한일합방같은 국가적 큰 불행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사람으로서 이 불행에 실수하는 사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 대신 한국이 독립을 했을때 이 민족적 큰 다행에 한국사람으로서 이 다행에 실수하는 사람이 그 어디 있겠는가. 민족이란 육면이란 이런 운명의 공동체 입으로서 한 가지 한 사회와 분립할수 없고 한 사회가 한 국가와 독립할수없고 한 국가가 세계와 떠나서 살 수가 없다. 터우기 조국을 멀리 떠나 강변모래사장에 급사해가 같이 말과 풍속을 달리하는 다른 민족 사이에 끼여서 외로이 사는 오늘의 우리 처지로서는 심리적 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찌 서로 가깝게 친하게 아니 살 수가 있으리요. 가깝게 친하게 산다는 말은 곧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단결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하는 일이 순조로워지고 우리의 하는 일이 순조로워 질수록 자연 외부로 부리의 협조도 많아진다. 그러면 여기 우리 사회도 자연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고 살고있는 안정과 질서가 있다면 세계는 세계평화국 물론 하나이다. 한 나라를 같이하고 말을 같이하고 습관을 같이하는 동포들끼리 어찌 한관과 평안을 서로 달리 할수 있을것인가.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사회를 바꿈으로하고 생기는 한 그 일의 이해가 사회의 이해상관과 관련을 아니 가질수 없다. 큰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가령 어느 여름 장마에 낙동강 연안에 대홍수가 나서 도시와 농촌을 휩쓸었다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은 하나이다, 언어는 하나이다, 운명의 공동체라는 결론을, 또한 한 민족을 더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엑스포 '74 5월 4일 개막  
 8월 15일엔 「코리아 데이」 행사  
 「공평한 발전」을 주제로 한 세계 박람회 '74가 5월 4일부터 워싱턴주 동부에 있는 「스포케인」사에서 개막된다. 「스포케인」강 주변 24만 여년에 펼쳐진, 박람회장 한 가운데 자리잡은 한국관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이미지」를 널리 선양할 계획이다. 한국관 담당 책임자인 설원철 상임 무역관장의 말에 의하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척을 보아 오는 4월 20일이면 완공되는데 민족음악과 무용, 농악을 공연이 박람회기간 매일 있을것이며 「코리아 데이」 행사(8월 15~18일) 중엔 「모데카 하우스」에서 「리틀 엔젤스」 등의 민족무용 공연도 가진다고 한다. 한국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해 여러가지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으며 한국식당도 이안에 완공되어 있다고 한다. 박람회에 관한 안내서(행사예정표, 또는 숙박시설 안내등)가 필요한분은 Expo '74 Hospitality Services, P.O. Box 1974, Spokane, Wa. 99210 전화 (509) 456-5525로 연락하면 1974 World's Fair Color Preview Packet를 무료로 받아 볼수 있다고 한다.



주소록 작성과 배부  
 본 한민회에서는 1974년도 와싱턴주 한인명부록 작성중인데 새로모인분이나 새 주소로 이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소록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같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회보를 받아 보신분은 두주나 아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서 오는 5월 10일까지 보내 주시면 보내주신분에게는 새주소록이 인쇄된 예로 곧 부쳐드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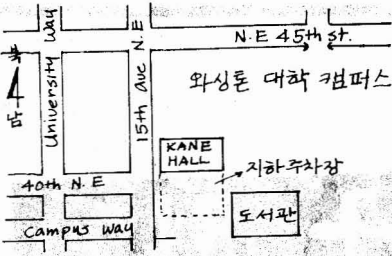
성명: \_\_\_\_\_  
 Name Last First Middle  
 직군: \_\_\_\_\_  
 배우자성명: \_\_\_\_\_  
 주소: \_\_\_\_\_  
 Address: \_\_\_\_\_  
 전화번호: \_\_\_\_\_

전화번호를 명부에 실리기 원치 않으시면 X 표시하십시오.  
 주소록과 회보본 아래에 적은분에게도 보내 주십시오.  
 성명 \_\_\_\_\_ 전화 \_\_\_\_\_  
 주소 \_\_\_\_\_  
 편의상 한민회비(또는 참조금) # \_\_\_\_\_ 를 동봉함.

한인회관 설치 위원회 통신

가) 본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평이 좋은 시너마스모프 **중추연석 영화** 1장의 연인"을 상영 하오니 가족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시간 - 1974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8:00시.
2. 상영비 및 기부 - 일반 \$2.00 학생 \$1.00
3. 장소 - 와싱턴 대학, KANE HALL Room 110 (중추연석 "안중근 의사" 영화를 상영함)



나) 바깥은 선명함에서 회관 건축 기금으로 현금 \$500.00을 회사하여 주신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여러교포들의 회사가 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건축 위원회 또는 기금에 대해서 문의 하신분은 위원장 김현중씨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14-1828 주소: 18210 41st Pl. W Lynnwood, Wash. 98036

한국의 밤

한인회관 설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기대 하시던 우리의 자랑인 아리랑밴드와 가수들과 함께 좋아하는 교포와 미국친구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로오신 교포들을 많이 모시고 참석하시어 대성황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1. 맥주 (Beer), 음료수 (7-up, Cola 등) 안주는 무료 (Free)로 제공.
2. 일반술은 각자가 가지고 오시면 먹어는 무료로 드림.

3. 장소: 시애틀 센터 (Seattle Center) Shrine Asso. Hall (Nile Temple) (Free shrine Privat Parking Lot)
4. 시일: 197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8:00 ~ 아침 2:00
5. 회비: 각 \$5.00 (일반, 학생)
6. 표: 표를 미리 사는 분에게는 \$4.50
7. 예매는 5월 5일부터 아래 장소에서 시작함: Five Seas; 한국집, 새서울 식당, 동서관광, 아리랑주점.

MAIL ORDER: 송중네 3417 39th Ave. W. SEATTLE, WA.

회관설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제2회 아세아인의 날

5월 25일 "타코마"서 행사

"타코마"에 있는 ASIAN AMERICAN ALLIANCE가 주최하는 제2회 ASIAN DAY가 오는 5월 25일 TACOMA COMMUNITY HOUSE에서 열리게 되는데 한국도 음악, 무용, 태권도 시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코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맛있는 한국음식을 준비하여 이날 한국을 훌륭히 알리고자 노력중 이라함. 교포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후원해주면 바라고 있다.

TACOMA COMMUNITY HOUSE 주소 1311 "M" Street TACOMA, WASH. 전화 FU3-3951 타코마 부인회 (회장 Mrs. NAM HI KNOWLES) 전화 번호는 JU8-5659 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북서 지부 결성. 재미교포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Association의 Northwest 지부가 지난 3월 15일 와싱턴 대학교에서 결성되었는데 전계상, 이창희 두분을 교장으로 추대하고 지부장에 한만섭씨, 총무에 이순모씨를 각각 선출하였다. 이 "KSEA" 지부에서는 오는 7월 말에 서울에서 열릴 포국방문 과학-기술 심포지움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가하는 분에게는 여비보조의 특전(본인이 \$300만 부담하면 나머지 왕복여비 및 국내채류경비는 주최자측인 한국 과학 기술단체 총 연합회에서 부담한다고함)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총무 이순모(전화 485-4415) 앞으로 연락 하길 바랍니다.

° 플프클럽 소식.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시애틀 플프클럽 총회에서는 197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시켰는데 한인사회에 플프 보급을 위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다른 도시에 있는 클럽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1회씩 플프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는데 행사표는 아래와 같다.

- 4월 27일 제 타코마친선 (Seattle서)
- 5월 25일 " 포트랜드 (Portland서)
- 6월 29일 " 벤쿠버 (Seattle서)
- 7월 27일 (예정) Seattle (local)
- 8월 24일 (예정) Seattle open-Intl
- 9월 " " 포트랜드친선 (Seattle)
- 10월 (예정) Seattle (local)

그런데 예정된 대회는 재정적 후원을 해 줄 개인이나 기관이 있으면 대회명칭을 그 이름을 따서 부르고 주최자로 한다고 한다.

한국 고전음악과 무용 발표회

이 병원씨 마지막 불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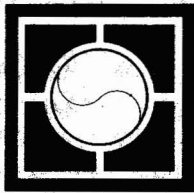
한국 고전 음악, 무용 발표회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Museum of History and Industry 에서 열리게 되는데 과거 7년 동안 와싱턴 대학에서 한국고전음악을 가르치며 이지역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이 컸던 이병원씨가 오는 6월 중순경에 시애틀을 떠남에 따라 이지역 교포들로서는 이번 발표회에 출연하는 이병원씨를 불마지막 기회가 되겠다. 이날 발표회 프로그램을 보면 중중음악, 싯푸리 (죽홍무용), 민요, 향유 판소리, 농악 등으로 특히 이병원씨가 리드한 농악대는 손자랑거리로서 우리가 오래 두고 기억할 것이다.

교회소식

시애틀 한인 형제교회에서는 부흥회를 5월 3일(금)과 4일(토) 저녁 7시-8시에 열리게 되는데 부흥사는 서울순복음 중앙교회의 최자실 목사이며 시애틀지역에서는 모든 기독교인은 꼭 참석하여 은혜받기를 바라고 있다.

- \* 본회보 2월호에 실린 한만섭씨의 특별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고칩니다. 이것은 편집부의 실수였습니다.
- \* 3월호에 "VOL. 3"로 된것은 "VOL. 1, No. 3"가 잘못 인쇄된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訂正



**워싱턴주한인상공회**  
**WASHINGTON STATE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본회는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 (WASHINGTON STATE KOREAN BUSINESSMEN ASSOCIATION)라 칭하며 워싱턴주내의 한국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사업상의 상호협조를 위하여 더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본회 도와드리수 있는 취지를 가지고 구성된 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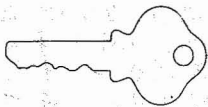
워싱턴주에 계신 한국의 사회와 한국인 각자가 서로 돕고 의지 함으로써 만이 우리가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수 있다고 볼때 여러분께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옵고, 명랑·우호로운 여러모로 최대한 도울수 있는 우리의 상공회가 될것을 약속합니다.

**상공회 회원 활동**

회비 : 입회비 (한번) \$ 10.00  
 월회비 (매월) \$ 5.00  
 모금 : 매월 두배주 안으로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나 뜻이 있으면은 622-7371 김경량 회장에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우리가 할수 있는 여까지 도움을 드려겠습니다.

**씨아틀 지역**  
**가옥 토지 매매 알선 및**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For Buying, Selling, Counseling of all types of Homes, Acreage and Commercial Properties in Seattle Area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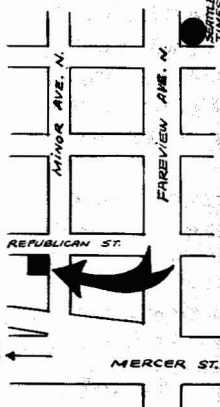
6308 212th S.W. Lynwood, WA 98036 Res. 778-1972 Bus. 774-4176



한국-서양 인형, 목각  
 방석 카버, 각종 세라  
 공예품 도산대  
 \* 개찰 특별 할인 20%

**HOME GROCERY**

500 MINOR AVE. N.  
 SEATTLE, WA. 98109  
 623-0074



면허소지. 책임수리  
**K-western**  
**T.V. APPLIANCE SERVICE**



SALES and SERVICE

**MYUNG H. KIM**  
 Licensed Elect. Specialist

107 Eastlake Ave. E.  
 #202 Seattle, Wash.

Day 228-6211  
 Evening 622-6699

**김치**

**한국집**

KOREAN FOOD PRODUCTION  
**grocery store**

우야지마야 약 · 514 6th AVE. S., SEATTLE, WASH · PHONE 682-2992

**인사의 말씀**

천재하는 우리 교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삼가 축원합니다. 오하이오 (Ohio) 주에서 상업과 교편생활을 하다가 살기좋은 이곳에 이사는 안병용 (Philip Byung-Yong Ahn)은 이번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의 에이전트 (Agent)로 임명받고 워싱턴주의 각종 보험 면허증을 받았으므로 우선 지역을 통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교포 여러분의 미국생활에서 절대로 필요한 자동차, 생명, 화재, 집, 건강, 연금, 교육보험등 (Car, Life, Fire, Home, Health, Boat, Bond, Business, Etc.) 보험일체를 신용과 엄과분위로 성실한

취급해드리겠어오나 교포레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옵니다. 특히, 여러분의 다음 번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하실때에 또는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의 배려를 드리겠어오며, 보험에 관한것은 무엇이든지 저의 집 (244-8198) 또는 회사 사무실 (447-2900)이나 또는 저의 이름으로하는 빅스콜 아이스크림-헵버그 식당 (433-7465, Burien Big Scoop) 으로 전화 연락해 주시길 정심으로 바라옵니다.

안병용 올림



**INSURANCE FOR EVERY NEED!**

**보험일체**



자동차, 화재, 집  
 생명, 건강, 연금, 교육 ...  
 신용과 엄가분위로

auto, fire, homeowners  
 life, health, boat, bond, business  
 Low-Cost Top-Quality Protection

프루덴셜보험회사  
 에이전트  
 안 병 용

• PHILIP BYUNG-YONG AHN •  
 Special Agent  
 Prudential Insurance Co. of America  
 Prudential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  
 201 Broad St., Seattle, Wa. 98121

PHONE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If no answer, (206) 433-9465 (Burien Big Scoop)



# 아리랑 바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1896

ORIENTAL ARTS & FRAMING  
**BOOIL ARTS**

▶ 동양화 · 판화 · 탁본 · 각종 액자 제작 ◀

in pioneer square area • CALL 624-8930 •  
83-b s. washington st., seattle, wa. 98104

MANDARIN CHINESE AND KOREAN  
RESTAURANT

# 비원

*The Tea Leaf*

TUE - THUR & SUN 11:00 am - 9:00 pm  
FRI & SAT 11:00 am - 10:00 pm

528 S. GARFIELD STREET, SEATTLE, WA. 98144 PHONE (206) 531-5232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